

# 年 465억 돈줄 끊기고 1개면 인구 유출... 지역경제 매몰 우려

## 폐광 후폭풍은?

최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폐업설이 나돌면서 지역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지역경제의 첨병 역할을 해온 화순광업소가 폐광될 경우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화순광업소 운반부·지원부·일반직·직영·협력업체 등 종사자 수는 모두 512명이다. 이들 중 화순 거주자는 394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2%(118명)는 광주에 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화순광업소가 인건비·경비·자재비·세금 등의 명목으로 집행한 자금은 모두 465억5400만원이다. 군 1년 예산이 46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군 예산의 10분의1과 맞먹는 규모다. 화순광업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화순광업소 폐업으로 이들 직원이 화순을 떠날 경우 인구 유출에 따른 경제인구 감소로 지역이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1명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화순 거주자(394명)는 모

광업소 종사자 수 512명

대규모 실직 사태 불가피

식당·상가 매출 감소 타격

두 1576명으로 추정된다고 군 측은 설명했다. 이는 군 전체 인구 6만7000명의 2.34%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화순 이서면 주민수가 100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개면 이상이 고스란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화순광업소 폐업은 노동자 실직 사태로 이어지고 이는 인구 유출과 연결되면서 지역 공동화를 불러와 지역경제를 위협에 빠트리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상가 주인들 사이에선 화순광업소 폐업설에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화순 S식당 주인 김모(59)씨는 “화순광업소 노동자 대부분이 화순읍에 사는 데, 월급날이면 화순읍이라고 식당을 자주 찾았다”면서 “폐업설이 나돌면서 당장 지난날 매출도 줄어들었다. 폐광된다면 식당 뿐만 아니라 상가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화순=배영재기자 byj@



▲2일 화순군 동면 북암리 화순광업소 곳곳에 정부의 일방적인 폐광 방침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정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와 협력사 10여 곳의 직원·가족 등 20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김진수기자 jeans@

## “석탄 켤수록 손해” vs “정부 일방적 폐쇄”

### 폐광 논란 쟁점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폐업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밝힌 원인은 적자 운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석탄공사 빛은 1조5989억원이다. 최근에도 매년 1000억 원씩 적자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화순광업소 석탄 생산량은 22만8000t으로 하루 생산량은 약 931t(245일 작업 기준·25t 기준 37대분량)이다.

지난 1989년 연간 최고 생산실적인 70만5000t의 석탄을 생산한 이후 매년 급감세다. 현재 전주산업·광일연탄·남산연탄·화광연탄·강진연탄 등 5곳에 석탄

을 공급 중인 화순광업소는 해마다 23만t 기준, 향후 80년간 채광이 가능하지만 화순광업소는 생산량을 오히려 줄여가고 있다. 석탄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석탄 1t을 캐면 대략 1만3450원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이 같이 정부는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짐에 따라 화순광업소를 포함한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 삼척 도계 등을 연차적으로 폐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화순광업소 직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공사 폐광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폐광 조치 등의 모든 문제를 경영진과 탄광 군

로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미세먼지 농도가 극심한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에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적자 폭이 커지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폐광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전열 대한석탄공사노조 화순지부 부지부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화순탄광 폐쇄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산업역군이라고 부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노동자·탄광 주변 지역민 등과 한 마디 상의 없이 폐쇄를 결정한 것은 옳지 않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한편 16개 광산에 종사자 5000여명 대호황

### 화순 석탄산업 어제와 오늘

“월급날은 화순군 잔칫날”

1989년부터 쇠락의 길

현재 광산 달랑 1곳만 남아

화순은 82년간 석탄으로 울고 웃었다. 석탄산업이 호황을 누릴 땐 ‘강아지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민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시행한 이후 석탄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그 ‘웃음’은 ‘울음’으로 바뀌었다.

2일 현재 화순에서 유일무이한 광업소는 폐업설이 나오는 화순군 동면 ‘화순광업소’다. 이 광구는 지난 1934년 지역 최초로 개발됐는데, 이후 화순엔 1964년까지 모두 16개의 광산이 추가 개발됐다. 석탄이 가정용 연료(장작→연탄)로 사용되며 수요가 급증한 때문이다. 이때 당시 화순 인구는 대략 15만 명으로, 탄광 종사자 수만 최소 5000명 이상이었다는 게 화순군 측의 설명이다.

20년 전 광부를 그만 둔 김모(65)씨는 “(광부들) 월급날이면 화순 전체가 잔칫날이었다”며 “지난 1982년 입사 당시 월급



2일 화순군 동면 북암리 화순탄광 경구 주변에서 작업자들이 경석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경석은 갱내 팔파 때 석탄과 함께 쏟아지는 가치가 낮은 돌이다. /김진수기자 jeans@

이 인기 직종인 교사는 물론 대표 공기업 한국전력보다 많았다”라고 기억했다.

하지만 호황을 누리던 석탄산업은 27년 전부터 사양산업이 됐다. 1989년 6월 무등 석탄을 시작으로 동남석탄·덕신석탄 등 화순지역 16개 탄광이 1996년까지 연이어 폐광됐다. 탄광 종사자 수는 3721명(1986년)→2966명(1989년)→2562명(1990년)→512명(올해)으로 계속 줄어갔다.

폐광지역은 어김없이 폐허로 변해갔다. 호남탄광(1991년 폐광)이 있던 화순군 한천면 오름리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1989

년(1113명)→1991년(778명)→올해(159명) 등으로 급감했다. 현재 이 마을엔 모두 7가구만 남아 있다. 폐광지역 주변 마을이 어떤 식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교과서에 ‘화순=무연탄’이라는 표시가 돼 있을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한 곳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들 문제와 관련, 경제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간 산업역군으로 일해온 이들의 생존권 논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 “막장만 들락거리던 50대 광부들 어디로 가란 말이나”

### 이상근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 지부장



“화순광업소 종사자 대부분은 연령대가 50대 중반을 넘습니다. 이들이 실직하면 누가 사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평생 어두운 막장만 들락거리던 분들인데...” 이상근(68)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장은 2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한석탄공사 호남광업소 폐광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974년 11월 화순광업소에 입사, 동경에서 25년간 근무한 뒤 1998년 퇴직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화순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화순지역 다른 탄광 광부들과도 잦은 교류를 하며 지냈

다. 그는 화순광업소 폐업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90년대 초·중반 탄광이 잇따라 문을 닫았는데, 실직자 10명 중 9명은 갈 곳이 없어 농사를 지었다”면서 “당시 광부들은 소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회에서 받아줬겠느냐. 그래서 화순광업소 종사자들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부로서 근무할 당시 자부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우리 때문

에 지역경제가 먹고 살았다. 70년대 중후반 화순군 예산보다 화순광업소 예산이 훨씬 더 많은 적도 있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동맥을 이어가는 초석이 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 정부의 광산정책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현재 회원들이 1500명 가량 되는데, 이들 대다수는 농사를 짓는다”면서 “현재 회원 250명 가량이 화순 고령·중앙·성심병원에서 진폐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해마다 평균 40명씩 사망한다. 한때는 산업역군이었는데, 실직 후 지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



#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 진료내용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직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 진료분야

####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